

전주객사길 일방통행 전면 시행

시, 5개 노선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키로

이색적인 맛집과 카페가 들어서면서 방문객이 급증한 전주객사길(일명 객리단길)의 교통체계가 일방통행으로 바뀌었다.

전주시는 전주객사1·2·3길 5개 노선(1.7km 구간)의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등 마무리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일방통행 시행 초기 역주행 진입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 첫 날부터 5일 간 교

통신호수를 배치해 차량 진·출입을 안내했다. 또, 해당지역 상인들에게 일방통행 안내 지도를 배부하는 등 홍보를 했다.

일방통행이 전면 시행되면서 그간 불법주정차 차량과 양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 사이를 이슬이슬 피해 다니며 걸어야 했던 시민과 방문객들이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해 걸어다닐 수 있게 됐다.

시는 일방통행이 완전히 정착되면 전주객사길이 사업 취지에 맞게 사

람중심의 도로로 탈바꿈돼 보행자가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어 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일방통행 시행구간에 국비 10억 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아직 차선으로만 구분된 보행로에 인도블록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무단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관찰 경찰서와의 간담

회 등 총 9차례에 협의와 관찰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등을 거쳐 전주객사길 보행로 확보 및 일방통행으로의 교통체계개선을 확정시켰다.

김종업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일방통행 시행초기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기간 동안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기 위한 이번 객사길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주민과 상인,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바이오뷰티 개발 성과 발표회

'바이오뷰티 개발센터'가 그 간의 성과와 바이오뷰티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전주 시민 및 기업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사장 김양원 부시장은 오는 12월 11일 10시 아름다운컨벤션 1층에서 '바이오뷰티개발센터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운수만 소장이 '화장품산업의 신트렌드를 이끌 전주 바이오 소재의 경쟁력 요인 분석'이란 주제로 동물대체 시험법, 피부노화회복과 항노화 기능성화장품 소재 개발 등의 발표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연구원에서 개발한 피부미백 및 보습용 화장품 조성을 위한 특허를 바이오브(주)에 기술이전을 할 계획이다.

전주시 바이오뷰티 협의회 김양수 회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전주 시농생명 분야 활성화와 바이오뷰티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주시의회 부의장 강동화 의원, 서남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동 문화경제위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강열 원장은 "그 동안 바이오뷰티개발센터의 연구성과와 기업의 상품개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관심있는 뷰티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번 성과발표회에 참석해 뷰티산업의 최신동향 파악과 연구원 개발성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리사이클링 주민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은 5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 '쓰레기 대란' 재현되나?

리사이클링타운 주민 "약속한 출연금 현금지급하라" 시, "현금지급 불가, 최악 상황 대비 임시 처리장 검토"

전주에서 쓰레기 대란이 재현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전주 완산구 상림동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인근 주민들이 전주시에 애초 약속한 출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쓰레기 분리수거장사를 강화해 쓰레기 수거와 처리 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은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현금 지급 약속 등을 이행하지 않아 불량 쓰레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 위원장은 "악취가 심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시에 수차례 소독과 청소차 지원을 요구했지만 한번도 이루어 지지 않고, 특히 침출수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현금지급을 금지하자 주민협의체가 반입 쓰레기 검사를 강화하면서 쓰레기 수거와 반입·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2012~2014년 출연금으로 애초 약속한 출연금의 절반가량인 24억6천만원을 160여 가구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 전달했으나, 2016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쓰레기 성상 검사를 강화하는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인근 주민들을 설득 하면서 쓰레기 대란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에 따라 원 칙대로 하고 있다"며, "쓰레기 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임시 처리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서신동 주민센터 · 자치위

친절 · 스마일 공무원 선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서신동 주민센터 친절 · 스마일 공무원을 선발, 시상했다.

이번 친절 · 스마일공무원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우리씨다. 스마일 공무원은 지역주민과 자생단체 회원 등의 주변여론을 수렴하고 동료직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며, 선정된 직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은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시상은 연세교회 한홍서 원로목사의 후원으로 친절한 서신동 만들기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 이번에 아홉 번째다.

최유 주민자치위원장 "다른 동에 비해 민원이 많고 바쁘게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응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진희 서신동장은 "우리 동에서는 전 직원이 친절한 서신동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협조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돼 더욱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전주시, 한옥마을 건물주 · 공인중개사와 상생 간담회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적정 임대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옥마을 건물주와 공인중개사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5일 전주한옥마을 최명희문화관 회의실에서 한옥마을건물주와 한옥마을 전담 공인중개사, 전주시 관계공무원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주한옥마을의 현 실태 점검과 임대료 상승에 대응해온 전주시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국내외 임대료상승 지역현황과 정책사례 등을 토대로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행정의 역할정립과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물주들은 임대인과 함께 상생 ·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및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

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전주한옥마을의 높은 임대료 문제와 비수기 동안 임차인들이 겪는 어려움, 전주한옥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업종 입주 등 전주한옥마을의 현 실태에 공감하는 건물주들이었다.

또한, 시 생태도시계획과와 협업을 통해 구성된 한옥마을 전담 공인중개사들은 향후 한옥마을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반에 대한 동향자문과 적정임대료와 매매가격 수준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성수기를 기준으로 책정된 임대료로 인해 비수기에 겪는 임차인들의 타격이 큰 만큼,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한 임대료 책정 없이는 지속적으로 임대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효철 기자



제11회 예수병원 선교후원회는 정기총회를 지난 3일에 예수병원 예배실에서 가졌다고 5일 밝혔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병원 선교후원회 정기총회… 후원금 5000만원 전달

제11회 예수병원 선교후원회(회장 정창환 목사, 군산신교회)는 정기총회를 지난 3일에 예수병원 예배실에서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전북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진행된 정기총회 1부 예배는 예수병원 정선범 원목실장의 사회로 황세영 목사의 기도와 오성택 목사의 설교, 정창환 목사의 축도로 시작했다.

오성택 목사는 "기독교 교계를 대표해 사람으로 환자를 섬기는 예수병원이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북 교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창환 회장은 전북지역 교회들이 올해 예수병원 발전을 위해 모금된 후원금 5천만원을 권정영 병원장에게 전달했다.

권정영 병원장은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수병원 선교후원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예수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예수병원 선교후원회는 2004년 '전북 교계가 예수병원의 울타리가 되자'라는 뜻을 세우고 예수병원을 위한 전북 교회들의 초교파적인 후원과 협력을 이뤄 예수병원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기총회에서 서정수 목사(동은교회)가 2년 임기의 차기 회장에 선출됐고 총무에 김범준 목사, 회계에 안효관 목사, 감사에 유병근 목사와 서용수 목사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개원 120주년을 맞이한 예수병원은 세계 최고의 선교기관을 지향하며 전 직원이 매월 급여의 1%를 예수병원 봉사단체인 국제의료협력단 후원회 원내, 국내, 해외에서 활발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태 기자

‘허위사실공표’ 황인홍 무주군수 첫 공판

‘재판서 소명하겠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 지방에서 열렸다.

5일 오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황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시간이 촉박해 서류를 검토하지 못했다. 시간이 달라"고 말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 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서 부득이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우를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소명란에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직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재판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며 답을 회피했다.

한편 황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뉴스시스

최규성, ‘8년간 최규호 도피 조력’ 혐의 인정

‘형제니가 도왔다’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장기간 도피 생활은 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께 최 전 사장은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해 관계가 얽혀있어 소통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전주한옥마을의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임대료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상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전주한옥마을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물주들을 중심으로 한옥마을의 임대료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조력자 10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최 전 교육감이 병원과 골프장, 테니스장 등을 다닐 때 사용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제3자 명의로 된 24평대 아파트에서 살며 휴대폰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사임한 최 전 시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7조 5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었다.

최 전 교육감은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형제이기 때문에 최 전 시장은 형의 도피를 위해 많은 도움을 줬고, 최 전 교육감 역시 도피 중 최 전 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의존했다"며 "현재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한 식당에서 도피 8년 2개월만에 검찰 수사관에 의해 붙잡혔다.

/뉴스시스